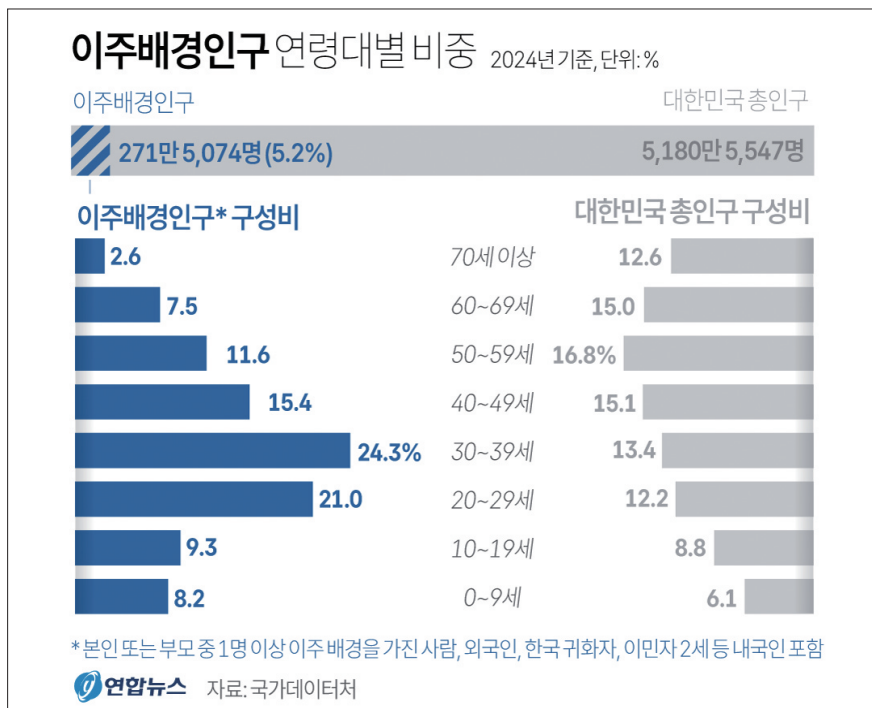


빨라지는 다문화사회...영암 5명 중 1명 이주민 '최고'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발표



광주 5만864명·전남 9만9546명 기록

완도·진도 등 전남 3개 시군 10% 돌파

전국 인구 5.2% 차지...전년비 5.2% ↑

전남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은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전체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군의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1.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는 17개로, 영암군 21.1%, 완도군 19.9%, 경기 안산시 16.1%, 경기 포천 15.1%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완도군 (14.1%)과 진도군 (13.3%)이 10%를 넘어서었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내국인 (귀화·인자), 내국인 (이민자 2세), 내국인 (기타)의 합으로 산출한다.

지역별 이주배경인구는 경기가 88만 71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만 4857명, 인천 18만 348명, 충남 17만 6257명, 경남 16만 8121명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5만 864명, 9만 9546명이었다.

지난해 전국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074명으로, 총인구 (5180만 5547명)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전년 대비 5.2% (13만 4161명) 늘어 총인구 증가율

(0.1%)을 크게 웃돌았다.

이주배경인구를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이 204만 27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 (귀화·인자·이민자 2세 등)은 67만 2330명이었다.

내국인 중에서는 이민자 2세가 38만 9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귀화·인자 24만 5372명, 기타 4만 6030명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66만 123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57만 268명, 40대 41만 8826명, 50대 31만 620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대는 전년 대비 4만 2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22만 2537명, 0~14세 유소년인구는 34만 4419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만 8118명이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 8079명으로, 전년 (68만 3886명) 대비 5만 4193명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이 37만 1577명, 이민자 2세가 33만 1649

명, 귀화·인자 2만 1499명, 기타 1만 3354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26만 2717명으로 가장 많고, 15~19세 13만 943명, 10~14세 12만 2516명, 5~9세 12만 529명, 0~4세 10만 1374명 순이었다.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0만 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만 1836명, 한국계 중국 8만 8461명 순이었다.

이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주배경인구가 증가한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귀화·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 가족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최근 고용허가제 확대가 취업 인구 유입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콘진원, 'ATF 2025'서 2356억 수출상담

한국공동관 운영...34개 기업 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티비 포럼 앤드 마켓 2025'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2356억원의 수출상담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2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아시아 대표 방송영상 마켓으로 '서사의 재구성, 스크린을 아우르는 상공의 기준'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공동관에는 △씨제이이엔엠 (CJ ENM) △스튜디오에스 (Studio S) △쿠방플레이 등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 및 25개사와 △더핑크퐁컴퍼니 △호텐데탈레드 △캠프파이

애니메이션 등 애니메이션 기업 9개사가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와 총 686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1억5753만달러 (2356억원) 규모의 성과를 내는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인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K-콘텐츠의 해외 협력 기반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콘텐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티비 포럼 앤드 마켓 2025'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해 2356억원의 수출상담을 기록했다.



서구, 기부 문화 활성화 캠페인 광주서 서구는 8일 2025년 나눔이 일상이 되는 기부 주간(12.8~12.12)을 맞아 서구청 1층 로비 및 광장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구제길)와 함께 '사랑의 열매 배지 달기', '희망2026 나눔 캠페인 안내' 등을 진행하며 직원과 청사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항만 간 상호협력 증진·상생발전 방안 모색

여수광양항만공사, 제7차 4대 항만공사 업무협의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공사에서 항만공사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제7차 4대 항만공사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송상근 부

사장,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보안 협의체 활동 강화 △국유재산 특례 존치

평가 공동대응 △보안합의서 상시 대응 체계 마련 △건설폐기물의식지수 고도화

및 보급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4대 항만공사 관계자들은 광양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주요 항만 시설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둘러보며 여수광양항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4대 항만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황학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의회는 4대 항만공사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광양=김재진 기자 lkjin@gwangnam.co.kr

한전,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중·고교 육상 훈련용품 후원

한국전력이 국내 육상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올림픽화관에서 대한육상연맹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 유망주들을 위한 훈련용품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육상 유망주에게 훈련용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대한육상연맹이 선정한 우수 중·고교 육상선수 116명에게 전문 훈련화를 전달했다.

한전은 1962년 육상단 창단 이래 김재용, 심종섭 등 장거리·마라톤 국가대표를 꾸준히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선수들을 육성하며 국내 육상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 밖에도 배구·럭비 종목의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스포츠 취약 계층 대상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며 국내 스포츠 산업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후원이 자리나는 육상 꿈나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육상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다 글로벌